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합창과 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 맑은 목소리로 부처님 생신 잔치했어요

### '전국 어린이 연꽃노래잔치' 현장

초등학교 시절, "노래 좀 한다"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꿔왔던 무대가 있다. 바로 어린이 풍요대회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두 손을 꼭게 모으고 온몸을 좌우로 흔들며 리듬을 타는 모습이 조금 우습기도 하다. 하지만 순수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노래 부르는 모습, 그 순간이 참 아름다웠다.

부처님께서 오신지 2551년이 된 올해, 부처님 생신을 맞이해서 불교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축제가 5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전국 어린이 연꽃노래잔치'라는 이름처럼 1년에 딱

는 모습도 보는 이에게 흐뭇한 광경이다. 이어 저학년 친구들의 노래 자랑 시간. 유치부가 깜찍했다면 이제 점점 화려한 의상을 입은 공주님들이 무대 위로 나설 차례다. 하늘색 드레스, 땀방이 치마, 깔끔한 올림머리는 공주님들의 특권. 공주님들 특색에 왕자님 우중이(10)가 끼었다. 남자 아이지만 깨끗한 목소리로 여자 아이들과 충분히 솜씨를 겨룰만하다.

얼핏 아이들이 너무 치열하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는데 쉬는 시간, 서로 손을 붙잡고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면 그런 근심은 멀리 사라졌다.

행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심사위원들이 누구에게 무슨 상을 줄지 열심히 고민하는 동안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멋진 공연, 사회자 이진 선생님(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의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다가왔다. 드디어 수상자를 발표하는 시간. 모두 나와 상장을 받고 만족하는 모습이다. 그저 노래가 좋아서 무대에 섰기에 후회는 없다. 하지만 대상만큼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궁금해진다.

두근두근한 순간, 고학년 부문 문소희(12) 어린이가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청안사에서 노래실력을 갖고 뛰어난 소리는 목소리만큼 수상소감도 포록포록 남긴다.

"평소에 음악을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이번엔 주지 스님께서는 좋은 대회를 알려주셔서 큰 상을

###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 부산 선철대분산 법어사에서는

매월 2·4주 토요일 10~12시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신기의 무술 태극권, 전통 다도, 한지 공예, 천연염색 등이 마련된다. (051)508-3122

#### 조계종 유등사 미타선원에서는

매월 2·4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미타선원 교육원에서 '회상 스님의 미술과 함께하는 마음공부'를 개최한다. 준비물은 미술도구이다. (051)253-8687

#### 안성 남사당 전수관에서는

남사당 풍물놀이를 약기 배우는 어린이 전통문화체험과 남사당 인형을 소재로 개발한 어린이 전통문화체험을 준비했다. 풍물의 장단과 신명을 풍물진법에 따라 움직여보고 춤추고 놀면서 배운다. 또한 남사당 인형극에 나오는 박쥐지 인형을 만들고 옷을 입혀 완성해 보고 인형극의 한 장면을 연출해 볼 수도 있다. (02)6012-9630, (031)678-2931

#### 서울 대학로 상상나눔씨어터에서는

5월 31일까지 국내 최초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뮤지컬 '노노이야기'가 공연된다. 이 공연은 선진교통문화대상에서 수여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뮤지컬 형식을 통해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알리고, 이러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02)741-2002

#### 서울 성북동 최순우 옛집에서는

5월 24일~27일까지 최순우 선생의 책 제목에서 따온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우리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강연, 낭독음악회, 답사, 체험놀이 등의 유익한 행사가 펼쳐진다. 행사 중에는 최순우의 옛집 안내와 그림 마당,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등도 즐길 수 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홈페이지(www.nt-heritage.org) 참조. (02)3675-3401-2

#### 청원 미술관에서는

수목원 내 산림과학박물관에서 6월 10일까지 우리 풀꽃과 자연을 소재로 만든 <자연이야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아이들이 신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나뭇가지 등이 어떻게 공예품으로 다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43)220-5501

####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작고 30주기를 맞아 박길웅 회고전을 연다. 박길웅은 천부적인 재능과 독특한 기질, 진보적 예술관을 지닌 예술가로 우리 화단에 추상미술을 도입한 이후 한국 현대추상화부문의 대표적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80여 점의 평면, 입체 양식의 작품들과 작가 관련 자료들이 전시된다. (02)2188-6000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 본선 참가자들 '삼귀의' 목소리도 달라 유치부의 깜찍한 노래에 객석 함박웃음 저학년들 땀방이 치마에 춤 솜씨도 '짱'



1번 열리는 어린이들의 노래 솜씨 경연장이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같은 것은 없었다. 그 동안 어린이들이 집에 다니며 배운 찬불동요를 여러 사람 앞에서 부르는 것, 그것이 목적인 무대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이미 예선을 거쳤다. 역시 본선 참가자들이어서일까, '삼귀의'를 부르는 목소리부터 남다르다. 그 어느 법당에서 들었던 삼귀의가 이렇게 맑았을까.

노래잔치는 송목 스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외치며 시작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어린이들은 유치부. 깜찍한 꼬가웃을 입은 유치부 어린이들의 귀여운 노랫소리에 객석은 그야말로 함박웃음이다. 그 중에서도 돌보인 친구는 헤림이(7). 그 나이 또래면 으레 음정도 불안하기 마련인데 헤림이는 정확한 음정 박자로 큰 박수를 받았다. 또 한 명의 유치부 스타는 윤성(5)이다. 가장 막내라서도 그렇지만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

이었고 시작된 단체합창과 고학년 무대. 단체는 능인선원이 역시 눈길을 끈다. 지휘자도 있는데다 25명이라는 숫자, 그리고 꾸준한 연습을 통한 실력 때문이다.

고학년 무대는 정연이, 지은이, 혜정이, 태연이, 소희 등이 다들 각자의 음악에 맞게 곡을 잘 살려냈다. 그나저나 큰일이다! 심사위원들이 너무 힘들게 생겼다. 보는 사람들도 누구에게 더 큰 상을 줘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실력이 다들 뛰어나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활약한 선생님(잔불가 작곡가)이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심사평을 남긴다.

"정말 잘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웃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음악에 맞는 곡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참 아쉬워요."

심사위원 선생님 말대로 이날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부처님을 사랑해', '하얀 연꽃', '웃으면서 살아 갈래요' 등 비교적 유명한 찬불동요에 집중되는 모습이 보였다. 심사위원들도 느꼈지만 객석에서도 학부



대상 수상한 문소희 학생(가운데 사진),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위 사진).

타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 상을 탔지만 다음에 또 대회가 있다면 친구들과 다시 한 번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요."

소회를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송목 스님은 "소회처럼 재능 있는 어린 불자들을 찾아 각 수행단체와 사찰에서 키워주는 것이 어린이 포교의 과제"라며 한 가지 제안한다.

"요즘은 '놀토'가 있잖아요. 각 사찰을 이용해 예체능분야를 지원,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많이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 홍콩 반환 10주년 기념종을 우리의 송으로

## -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의 범종 -

**홍콩 반환 10주년 기념종 성공리에 완성**

한국 최초·최대의 범종제작사로 5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가 오는 6월말 홍콩 반환 10주년을 기념하여 타종될 홍콩 범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범종은 한국 전통 양식이 아닌 중국 양식으로 제작된 국내 최초의 범종으로 완성되기까지 디자인에서부터 두께 설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성공리에 주조를 마칠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사 전매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문양이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소리 또한 기존의 중국 범종보다 우수하여 발주처인 홍콩불교연합회로부터 매우 훌륭하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우수한 범종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성종사가 되겠습니다.

- 성종사 임직원 일동 -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 www.sungjongsas.co.kr / E-MAIL: sungjongsas@hotmail.com  
 ◆ 대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대한민국 명장)